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on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among Parents with Preschoolers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기획팀 노신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생활과학연구소

부교수 진미정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Dept. of Project Planning : Noh, Shina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Chin, Meejung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influences parents' efficacy and stress. This study asks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geographical boundary of community perceived by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 2) how the components of family-friendly community affect parents' perception on family-friendliness of their communities, 3) how the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their community affects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Drawing on a sample of 628 parents(318 males, 310 females) who had at least one pre-school child, we analyze the data by frequencies, mea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While the responses on the geographical boundary of community varies the most frequent response is 'Gu'. Both knowledge on family service infra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which consist of family-friendly community, affect the perception of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The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enting efficac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parenting stress. The effect of the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on parenting efficacy disappears when social capital is included in the model. There is no such pattern i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and parenting stress.

▲주요어(Key Words) : 가족서비스 인프라(family service infra), 가족친화적 지역사회(family-friendly community), 사회자본(social capital), 양육 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이며, 2011년
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350-20110028)."

** 주저자·교신저자 : 노신애 (E-mail : hiolive82@gmail.com)

I. 서론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은 개별 가족이 책임지던 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모색되는 정책 중 하나이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란 최소단위로 축소되고 고립된 가족을 넘어 가족과 이웃, 나아가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약화된 현대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정부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을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정책연구원 혹은 정부부처에서 실시한 정책연구들이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홍승아 등, 2007; 정민자 등, 2008; 이송지 등, 2009),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연구(이삼식 등, 2007; 김혜영 등, 2009a), 가족친화 지역사회 실태조사(김혜영 등, 2009b)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외 연구에는 일-가족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Jeong, 2007; Jeong & Cho, 2008)과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등에 대한 연구들(Cha, 2010; Kim & Kim, 2010; Kim & Lee, 2010)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볼 때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관심이 촉발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정의, 지리적 범위, 구성요소 등과 같은 개념적 문제를 다룰 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개념과 범위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과정에서는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홍승아 등, 2007; 정민자 등, 2008)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혼용하는 용어들의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서 응답자나 연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단위가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긴 하지만(Rapoport, 1977; Lee, 2001 재인용), 뚜렷한 목표를 가진 정책적 개입이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연구에서는 용어들이 의미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에 관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로 시설, 설비, 물리적 환경 등의 서비스 인프라(홍승아 등, 2007; 김혜영 등, 2009a; 김혜영 등, 2009b)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김혜영 등, 2009a; Voydanoff, 2001)을 꼽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고 계량화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가늠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김혜영 등, 2009b), 실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조하여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를 크게 서비스 인프라와 사회자본으로 구분한 후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가족친화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가족친화성의 수준이 실제로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았다.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역사회 연구들도 문헌연구(Jeong, 2007; Jeong & Cho, 2008)가 대부분이어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가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많지만, 가족친화성이 실제로 가족들의 삶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관심을 받게 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가 실제로 돌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조망하고자 한다. Sweet, Swisher & Moen(2005)는 생애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기대하는 바가 다름을 강조하면서 생애주기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도 연구대상을 다양한 생애주기 중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제한하고자 한다. 미취학 연령대의 아동과 부모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지역사회’로 통일하고, 지역사회의 범위도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근거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 꼽고 있는 서비스 인프라와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이 부모들이 지각하는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와 지역사회에 대한 가족친화성 인식이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및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문제 1>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 <연구문제 2>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와 가족친화성 인식이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

가족생활의 물리적 공간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에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데, 김혜영(2008)은 전통적인 친족체계와 지역의 공동체성이 희박해지면서 과거에는 한 동네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 혹은 동네 이웃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와병중인 가족원 돌봄은 산업화 이래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귀속되면서 점차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의 조성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2007년에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볼 때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는 아직 개념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Voydanoff, 2001). Swisher, Sweet & Moen(2004)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의 요건을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정의하고자 했는데, 직장에 가깝고 부모님 집에서 가까우며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들의 수준이나 평판, 다양한 쇼핑과 여가활동의 기회가 있는 곳, 안전하고 주변의 주택들이 잘 관리되어 있으며, 지방세율이 높지 않은 곳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라고 결론짓고 있다. Voydanoff(2001)는 일-가족-지역사회의 상호관계를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일과 가족의 기능을 도와주는 지역사회를 지역사회의 사회조직, 사회적 관계망, 사회자본, 지역사회 정서, 공식적 자원봉사 및 비공식적 도움, 지역사회 만족감의 6가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홍승아 등(2007)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가족책임을 수행하고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과 가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성인, 노인 등 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일과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여가를 함께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민자 등(2008)의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적 지역사회를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양육과 보호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스스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거나 요보호 가족들에게 자녀양육과 보호에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동네나 마을 단위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주민 간에 자발적으로 변화하려는 역동적인 활동을 하거나 결속을 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송지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마을에 대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혜영(2008)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서 결국 가족친화 지역환경의 핵심은 ‘가족 돌봄의 책임성을 인지하고 돌봄 관련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는 쾌적한 지역환경’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자녀양육이나 돌봄을 분담하거나 지원하는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로 정의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일치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등의 다른 용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홍승아 등(2007)의 연구와 정민자 등(2008)의 연구에서는 연구전반에서는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울시의 행정구를 조사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지에서는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응답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어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 단위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개념의 모호성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적 범위의 모호성과 연결된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가족친화적 사회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평가한 보고서에서도, 행자부에서는 군 지역 또는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건교부는 도시지역(시, 구) 또는 도농복합시의 동(또는 그 이하 마을단위), 농림부는 마을, 법정 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담당부처의 혼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Connell and Kubisch(2001)의 연구에서는, 정책적 개입의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와 정책 실천의 단위나 장으로서의 동네를 구분하였다. 이는 Chaskin(1997)이 정책적 개입이나 연구의 목적이 정책을 알리거나 사회적 변화를 계획하기에는 지역사회가,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는 보다 작은 단위의 동네가 유용할 수 있다고 밝힌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의 문제는 사람들의 실제 인식이 어떠한지 혹은 정책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동의 영역에 따라 여러 용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진 정책적 개입이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서는 용어들이 의미하는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Lee, 2001).

2) 가족친화적 사회의 구성요소

가족친화적 사회의 구성요소 역시 뚜렷한 합의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시설, 설비, 물리적 환경 등의 서비스 인프라를 가족친화적 사회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본다(홍승아 등, 2007; 김혜영 등, 2009a; 김혜영 등, 2009b; Swisher et al., 2004). Swisher et al. (2004)는 학교, 쇼핑,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가족친화적 사회 요건에 포함시켰고, 김혜영 등(2009b)는 개별 가족의 일상적인 문제와 가족 돌봄의 욕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과 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홍승아 등(2007)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인프라가 정책이 전달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서비스 인프라가 양적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질적으로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비스 인프라와 더불어 또 가족친화적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은 사회자본이다. 사회사회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자본을 현대사회에 만연된 개인

주의 문화의 병폐를 치유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거나 공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즉, 사회자본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 된다(Nam, 2008).

사회자본의 차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개념요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요소가 혼재하는 가운데 실제 사회자본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들의 집합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으로서 포함시킬 수 있거나 사회자본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개념들을 서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들은 상당부분 중복되기도 하면서 연구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Kwak, 2003). Voydanoff(2001)는 일-가족 맥락에서 지역사회 사회조직, 사회적 관계망, 사회자본, 공식적 자원봉사 및 비공식적 지원, 지역사회 인식, 지역사회 만족 등 6개 차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였으며, 사회자본은 신뢰와 규범과 같은 문화적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Voydanoff의 사회자본 개념을 수용하면서 참여, 신뢰, 규범을 하위요소로 포함하였다.

가족친화적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문헌연구(김혜영 등, 2009a; 이송지 등, 2009)나 전반적인 실태조사(홍승아 등, 2007; 정민자 등, 2008; 김혜영 등, 2009b)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가족친화적 사회의 구성요소와 가족친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인프라와 사회자본이라는 구성요소가 사회사회의 가족친화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이 자녀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주목하였다.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긍정적인 신념과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므로 돌봄의 부담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양육 효능감은 Bandura의 자아효능감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켜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Choi, 2002).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기질, 출생순위 등 아동 관련 변인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교육수준, 연령, 취업여부 등의 부모 개인 관련 변인이 있으며, 자녀의 수, 가족수입,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원 등 환경 관련 변인이 있다(Ryu, Kim, & Song, 2009). 그리고 양육 효능감이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아동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친다(Coleman & Karrake, 1997; Sanders & Woolley, 2005).

양육 스트레스는 구체적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의미한다(Abidin, 1992).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Abidin(1990)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아동의 특성, 환경 요인을 지적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개인 관련 변인, 아동 관련 변인, 환경 관련 변인을 꼽고 있다(Kim & Cho, 2000; Seo & Lee, 2011).

지역사회 환경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나 양육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원과 직장 관련, 보육시설 관련 변인을 환경 변인에 포함시켜 살펴보고 있다.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관계망 속에서의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여기서 사회적 지원은 주 양육자 외의 배우자 지지나 가족외의 이웃 및 친인척의 지원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 즉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Choi, 2002). Cha and Shin(2005)의 연구에서는 이웃 및 친인척의 지원이 높을수록 취업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2010)의 연구에서도 기혼 여성이 돌봄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 and Shin(2005)에서 직장 상사의 지원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들이 이용하는 보육기관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상관없이 보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o, 2000; Lee & Moon, 2008; Seo & Lee, 2011; Shin & Jeon, 2005).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정책 차원에서나 연구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역사회가 부모의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다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특성이 부모들의 돌봄과 관련된 긍정적 신념과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현재 기혼상태의 남성 318명, 여성 310명으로 총 628명이다. 지역적 편포를 줄이기 위해 서울의 25개 구를 지역적 근접성을 근거로 6개 구역으로 나누어 통계청 2011년 0~5세 주민등록인구에 근거하여 할당표집하였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먼저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 본조사의 실시엔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예비조사는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기혼남녀를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기혼남녀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의 응답분포를 확인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두드러진 오류는 발견되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의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리서치 전문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연구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패널들이 조사에 응했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지역사회의 범위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해서는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개의 응답 중 선택하게 하였다. 6개의 응답은 홍승아 등(2007), 김혜영 등(2009b)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빌라/주택 단지', '아이들의 통학권', '자신이 살고 있는 동', '자신이 살고 있는 구',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기타'로 구성되었다.

2)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

본 연구에서 서비스 인프라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총 11개의 관련 시설들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터, 공원, 공공도서관, 주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11개의 서비스 인프라는 홍승아 등(2007) 연구에서 포함된 지역사회 시설에서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돌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제외하고 선정하였다.

서비스 인프라의 측정은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해당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 실제 유무를 조사한 객관적 현황이나 접근성, 만족도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서비스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혹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 인프라들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11개의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 '다음 시설들이 있습니까?' 질문하였고, 응답으로 '있다', '없다', '모른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있다'는 1로, '없다'와 '모른다'는 0으로 코딩하였다. 총 11개 서비스 인프라 중 몇 개를 아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1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70이다.

3) 지역사회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측정했던 Choi et al.(2010), World Bank (2004), So(2003), Hwang and Park(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사회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공통적으로 사용된 지역사회의 참여, 규범, 신뢰에 대한 총 13개 문항을 추출하여 만들었다. 두 번의 예비조사를 통해 4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총 9개의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는 3개의 개념요소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신뢰에 해당하는 5문항이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신뢰할 만하다', '우리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 지역사회는 해가 지고 난 뒤 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참여에 관한 2문항으로 '나는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종교/봉사/이익/친목/여가/학부모 단체 등)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규범에 관한 2문항으로 '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시한 적 있다', '나는 지역사회에서 범법자나 위험요소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적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9문항에 대한 응답은 살고 있는 행정구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중 하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이다.

4)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몇몇 연구에서 주민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홍승아 등, 2007; 김혜영 등, 2009b).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이나 이웃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사회자본 문항과 중복될 위험이 있고 또한 '가족친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는 힘들어 Sweet et al.(2005)의 연구에서처럼 직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한 인식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측정하는 1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중 하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5) 양육 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Choi and Chung(200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외의 여러 양육 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도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하고 신뢰도가 높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총 37문항으로 5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하위요소는 전반적인 양육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 지도 능력, 훈육 능력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전반적인 양육 능력'의 11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양육 능력은 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측정도구는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11개의 문항은 합산하여 개별지표로 사용한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다.

6) 양육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Short Form을 번안한 서혜영(199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이다. 이 도구의 Long Form은 101문항이었으나 1990년에 3개의 하위척도마다 12개의 문항씩, 총 36문항의 단축형 PSI Short Form이

개발되었으며, 총 3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하위요소는 디스트레스(부모영역),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 관계영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아동 영역)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디스트레스(부모영역)의 12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디스트레스는 역기능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야기하는 부모 개인의 적응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도구는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12개의 문항은 합산하여 개별지표로 사용한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다.

3. 분석방법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범위를 파악한 후,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사회 범위에 대한 최빈 응답에 기초하여 표본을 제한한 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1.0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한 대상자는 총 628명이며, 모두 기혼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남성은 318명, 여성은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3.87세(표준편차 3.24), 여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0.95세(표준편차 4.18)로 남성 응답자가 2.82세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남녀 응답자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남성 응답자의 72.64%, 여성 응답자의 70.00%이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는 대학원 수료 및 졸업이 6.67%로 두 번째, 여성 응답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17.74%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녀수의 경우, 남성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1.42명(표준편차 0.53), 여성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1.34명(표준편차 0.51)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자 모두 자녀수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남성 응답자의 59.43%, 여성 응답자의 67.74%이다. 두 번째로는 남녀 응답자 모두 2명으로 남성 응답자의 38.68%, 여성 응답자의 30.32%이며, 자녀수가 3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의 1.89%, 여성의

1.94%이다. 직업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경우 사무직 67.61%, 전문직 15.09%, 판매서비스직 5.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전업주부 51.29%, 사무직 35.16%, 전문직 8.06%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남성 응답자는 전일제가 99.30%, 시간제가 0.70%를, 여성 응답자는 전일제가 86.76%, 시간제가 13.24%를 차지하였다. 월 가구소득은 남성 응답자는 300만원대가 27.04%, 400만원대가 22.01%, 200만원대가 20.75%순으로, 여성 응답자는 400만원대가 24.19%, 300만원대가 22.58%, 200만원대가 22.26%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역사회 범위 및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

1) 지역사회의 범위 응답 분포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사회 범위가 어떠한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인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가족친화성 인식을 응답자가 생각하는 명확한 범위에 근거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로 용어를 통일하고, 사회 범위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범위를 근거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

<Table 2>는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가장 많은 260명(41.40%)이 자신이 살고 있는 행정구를 사회 범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이 190명(30.25%), 아파트/빌라/주택단지 96명(15.29%), 시가 53명(8.44%), 아이들의 통학권 28명(4.46%), '우리 동네 근처 아는데까지'라고 응답한 기타가 1명(0.16%)순으로 응답하였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사회 범위를 '자신이 살고 있는 행정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행정구'를 사회 범위로 설정하기로 하며, 연구결과 분석도 사회 범위를 '행정구'로 응답한 사람에 한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2)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특성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지역사회의 범위를 행정구로 응답한 260명에 대한 주요변수 통계치는 다음 <Table 3>과 같다. 11개의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에 대해서는 평균 9.19개(표준편차 1.80)를 알고 있으며,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총 36점 만점에 19.58점(표준편차 3.75)이며, 가족친화성 인식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50점(표준편차 .65)으로 중간 정도로 가족친화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육 효능감은 총 55점 만점에 37.77점(표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Men(%) (N=318)		Women(%) (N=310)	
Age	19~23	2	(0.63)	15	(4.84)
	24~29	12	(3.77)	82	(26.45)
	29~33	127	(39.94)	114	(36.77)
	34~39	156	(49.06)	96	(30.97)
	40~44	21	(6.60)	3	(0.97)
	M	33.87	(3.24)	30.95	(4.1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8	(5.66)	55	(17.74)
	Some College	16	(5.03)	18	(5.81)
	College Graduate	231	(72.64)	217	(70.00)
	Post College	53	(6.67)	20	(6.45)
Number of Children	1	189	(59.43)	210	(67.74)
	2	123	(38.68)	94	(30.32)
	3	6	(1.89)	6	(1.94)
	Mean	1.42	(0.53)	1.34	(0.51)
Job	Housewife	0	(0.00)	159	(51.29)
	Professional	48	(15.09)	25	(8.06)
	White Collar	215	(67.61)	109	(35.16)
	Sales/Service	18	(5.66)	2	(0.65)
	Production	5	(1.57)	0	(0.00)
	Self-Employed	21	(6.60)	4	(1.29)
	unemployed and Others	11	(3.45)	11	(3.55)
Employment Status	Full Time	284	(99.30)	118	(86.76)
	Part Time	2	(0.70)	18	(13.24)
Household Monthly Income	under ₩1,000,000	1	(0.31)	3	(0.97)
	₩1,000,001~2,000,000	17	(5.35)	32	(10.32)
	₩2,000,001~3,000,000	66	(20.75)	69	(22.26)
	₩3,000,001~4,000,000	86	(27.04)	70	(22.58)
	₩4,000,001~5,000,000	70	(22.01)	75	(24.19)
	₩5,000,001~6,000,000	34	(10.69)	29	(9.35)
	over ₩6,000,001	44	(13.84)	32	(10.32)

Table 2. Boundary of Community Perceived by Respondents

		Frequency (%) (N=628)	
	Around Apartment Complex	96	(15.29)
	Elementary School District	28	(4.46)
	Dong	190	(30.25)
	Gu	260	(41.40)
	City	53	(8.44)
	Other	1	(0.1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M	SD	Min	Max
Service Infra	9.19	1.80	0	11
Social Capital	19.58	3.75	9	36
Family-Friendliness	2.50	.65	1	4
Parenting Efficacy	37.77	6.50	11	55
Parenting Stress	34.97	7.38	12	60

Table 4. The Effects of Service Infra and Social Capital on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N=260

	b (S.E.)	β
Constant	.74 (.35)*	-
Service Infra	.07 (.02)**	.18
Social Capital	.04 (.01)***	.32
Control Variables		
Gender ¹⁾	-.07 (.10)	-.05
Education Level(High school or Less) ²⁾	.04 (.10)	.03
Education Level(over Graduate school)	-.30 (.14)*	-.13
Employed/Unemployed ³⁾	-.03 (.11)	-.02
Household monthly income	-.01 (.03)	-.02
F		8.27***
Adj. R-square		.16

* $p < .05$, ** $p < .01$, *** $p < .001$

Note: 1) Reference group is male; 2) Reference group is less than college education; 3) reference group is unemployed.

편차 6.50)이며, 양육 스트레스는 총 60점 만점에 34.97점(표준편차 7.38)으로 나타났다.

3.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1)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 및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친화적 구성요소들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들을 하였지만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Table 4>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인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이다.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8.27, p<.001$), 상수와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 사회자본 변수가 유의하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수준(대학원이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해석하면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양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자본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거나 평가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서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 및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와 규범, 참여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의 삶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가 실제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긍정적 신념을 반영하는 양육 효능감과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양육 효능감에 대한 가족친화적 구성요소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가족친화성 인식, 가족친화적 구성요소 및 통제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Model 1]은 가족친화성 인식과 통제변수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Model 2]는 가족친화성 인식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 통제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Model

1]을 살펴보면,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7.18, p<.001), 상수, 가족친화성 인식,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수준(고졸이하), 가구월수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odel 2]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8.28, p<.001), 상수, 사회자본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Model 1]에서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이 추가 투입된 [Model 2]에서는 양육 효능감에 대한 가족친화성 인식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으며, 사회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나 사회자본을 높게 인식할수록 양육 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이 가족친화성 인식이나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자본은 양육 효능감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사회자본은 가족친화성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다음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친화적 구성요소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가족친화성

Table 5.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on Parenting Efficacy N=260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stant	33.06	(2.65)***	-	23.10	(3.43)***	-
Family-Friendliness	1.91	(.58)***	.19	.84	(.62)	.08
Service Infra				.16	(.23)	.04
Social Capital				.37	(.09)***	.27
Control Variables						
Gender ¹⁾	-1.62	(1.02)	-12	-.98	(1.00)	-.0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²⁾	-2.04	(.99)*	-13	-1.59	(.96)	-.10
Education Level (over Graduate school)	2.24	(1.38)	.10	1.70	(1.34)	.08
Employed/Unemployed ³⁾	-1.94	(1.10)	-14	-1.44	(1.07)	-.11
Household monthly income ⁴⁾	.94	(.30)**	.21	.58	(.30)	-.13
F		7.18***			8.28***	
Adj. R-square		.13			.18	
△ R-square					.05	

*p < .05, **p < .01, ***p < .001

Note: 1) Reference group=male; 2) reference group is less than college education; 3) reference group is unemployed.

Table 6.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on Parenting Stress

N=260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Constant	37.26	(3.11)***	-	38.11	(4.14)***	-
Family-Friendliness	-1.91	(.69)**	-0.17	-1.85	(.75)*	-0.16
Service Infra				.52	(.28)	.13
Social Capital				-.19	(.11)	-.12
Control Variables						
Gender ¹⁾	1.28	(1.20)	.09	1.05	(1.20)	.0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²⁾	3.01	(1.16)*	.17	3.10	(1.16)**	.17
Education Level (over Graduate school)	1.56	(1.62)	.06	1.64	(1.62)	.06
Employed/Unemployed ³⁾	-1.02	(1.29)	-.07	-1.05	(1.29)	-.07
Household monthly income ⁴⁾	.08	(.35)	.02	.13	(.36)	.03
F		4.07***			3.66***	
Adj. R-square		.07			.08	
△ R-square					.01	

* $p < .05$, ** $p < .01$, *** $p < .001$

Note: 1) Reference group=male; 2) reference group is less than college education; 3) reference group is unemployed.

인식, 가족친화적 구성요소 및 통제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Model 1]은 가족친화성 인식과 통제변수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Model 2]는 가족친화성 인식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 통제변수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Model 1]을 살펴보면,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4.07, p<.001$), 상수, 가족친화성 인식,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수준(고졸이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odel 2]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3.66, p<.001$), 상수, 사회자본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수준(고졸이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Model 1]에서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2]에서는 추가 투입된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가족친화성 인식의 영향은 [Model 1]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지만,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이 양육 스트레스 경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양육 효능감과와의 관계에서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은 높지만, 사회자본이 양육 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사회자본을 높게 평가할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양육 효능감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가족친화성 인식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인 사회자본이 더 큰 관련이 있는 반면에,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가족친화성 인식이 구성요소인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나 사회자본 보다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구성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를 발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지각하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의 측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본 후,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이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문

제를 밝히기 위해서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 즉 남성 318명과 여성 310명으로 총 62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지역사회 범위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행정구'라고 응답한 응답자 260명(41.4%), 즉 남성 111명, 여성 149명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행정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었다. 둘째,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인식에는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가 더 높을수록 즉,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더 많이 알수록, 그리고 사회자본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한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보다는 사회자본이 가족친화성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셋째,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지만,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을 추가하여 관계를 보았을 때는, 가족친화성 인식의 관련성이 사라지면서 사회자본이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을 추가하여 관계를 보았을 때 변화가 없이 여전히 가족친화성 인식만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주민들이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 지역사회는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함으로써 돌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은 높게, 양육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이 가족의 자녀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통해 가족의 자녀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과 연구들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그러한 돌봄의 부담의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족친화성 인식은 서비스 인프라를 더 많이 알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는 곧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나아가 앞으로의 이용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가족친화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 노력을 인지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인 Chung and Chang(2005)의 연구에서는 정책의 활용정도는 조직 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Lee and Kwon(2009)의 연구에서도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서비스 인프라가 있다는 것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가족친화성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 뿐 아니라 홍보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를 통한 가족친화성 인식과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의 관련성은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 양육 효능감의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영향이 가족친화성 인식이나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인식은 양육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중 사회자본은 양육 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은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데 뿐 아니라 양육 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자본은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로의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공고히 할 수 있다(김혜영 등, 2009b). 또한 Voydanoff(2001)가 설명하였듯이 사회자본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향한 여러 정책적 노력과 연구들에서 사회자본 향상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의 주요한 전달체제로 자리잡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나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양육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지만,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이 양육 스트레스와의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경감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범위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구'를 지역사회의 범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력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사회 범위로 '행정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행정구는 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최소의 자치단위이면서 정치 뿐 아니라 복지, 문화 분야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단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행정구 내에 있는 여러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홍보도 행정구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구 차원의 여러 행사나 정책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행정구에 대한 신뢰나 규범의식을 고양하여 사회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또한 여러 지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행정구'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해 진행되었는데, 다른 지역사회 범위를 선택한 응답자를 분석한다면 혹은 비교를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행정구'로 일관되게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 해석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고,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직접 알아보아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함으로써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시행될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이라는 인식이 들게 한다면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REFERENCE

김혜영(2008). 녹색성장을 향한 가족친화환경 조성: 전략과 과제.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 홍승아 · 선보영 · 정재훈 · 진미정(2009a).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김혜영 · 홍승아 · 이택연 · 선보영 · 진미정 · 홍성만(2009b).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서혜영(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삼식 외(2007).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송지 · 김혜장 · 이경란 · 곽영선 · 정영화(2009).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정민자 · 정지영 · 조성은 · 한지수 · 김은희(2008).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개발.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실태 및 향후과제.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 · 相馬直直 · 조순주 · 진미정 (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Cha, S. & Shin, Y.(2005).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Human Science*, 25(1), 163-181.
 Cha, S.(2010). The role of institution for family-friendly community initiated by local people - The case study of livable community making projec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4), 77-100.
 Chaskin, R. J. (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71, 521-548.
 Choi, A., Ahn, T. & Lee, E.(2010).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scale in community - Focused on community welfare net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4), 297-324.
 Choi, H. & Chung, O.(2001).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2(3), 1-15.
 Choi, H.(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Chung, K. & Chang, E.(2005). Family-friendly policies

- and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Family and Culture*, 17(1), 59-84.
- Coleman, P. K., & Karrake,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nnell, J. P., & Kubisch, A. C. (2001). Community approaches to improving outcomes for urba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A. Booth & A. C. Crouter (Eds.), *Does it take a village?: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wang, Y. & Park, J.(2004). A study of the formative strategy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capital in Choongchung and Honam reg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4(4), 183-209.
- Jeong, J. & Cho, S.(2008). A study on the service support program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1), 21-39.
- Jeong, Y.(2007). Work-family balance in the context of supports of communiti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1), 37-51.
- Kim, J. & Kim, S.(2010). The process of the influence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family social capital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6(3), 153-174.
- Kim, K. & Cho, B.(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1(4), 35-50.
- Kim, S. & Kim, S.(2010). A study on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ctivity of the community library and the apartment house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73-96.
- Kim, S. & Lee, S.(2010). A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he national pilot project to make family-friendly communiti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4), 101-126.
- Kwak, H.(2003).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neighborhood-related social capital.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4(3), 259-285.
- Lee, B. A. (2001). Taking Neighborhoods Seriously. In A. Booth & A. C. Crouter (Eds.), *Does it take a village?: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ee, M. & Moon, H.(2008). Teacher-mother communication : Its effect on satisfaction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on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1), 1-14.
- Lee, S. & Kwon, Y.(2009). The medi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workplace culture and paternal involvement. *Family and Culture*, 21(1), 1-28
- Lee, Y.(2010). *Social capital and parenting stress among married women : Variations by employment status*. Unpublished maste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Nam, S.(2008). *Study on a local governance model by accumulating social capital : a case study on Cheongju c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Ryu, K., Kim, Y. & Song, Y.(2009). Parenting stress with her infant an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 who commit their infants to child-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1), 1-23.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 65-73.
- Seo, E. & Lee, M.(2011).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workplace child-care on the parenting stress,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par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1), 41-65.
- So, J.(2004). Toward developing social capital indicator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6(1), 89-118.
- Sweet, S., Swisher, R., & Moen, P. (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Family Relations*, 54, 596-606.
- Swisher, R., Sweet, S., & Moen, P. (2004).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nd its life course fi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281-292.
- Voydanoff, P. (2001).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Community, Work and Family*, 4(2), 133-156.

- 접수일 : 2012년 03월 05일
- 심사일 : 2012년 04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6월 11일